

폭력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가 자녀의 또래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임 정 임¹⁾

서울학교사회복지사협회

김 예 성²⁾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건강복지학부

본 연구는 폭력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가 자녀의 또래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중학생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매칭시킨 597사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한 뒤 구조방정식을 통해 경로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폭력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 자녀 간 유대감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자녀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매개로 하여 자녀의 또래괴롭힘 가해 또는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이론적 함의 및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과 관련한 실천적 개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또래괴롭힘, 학교폭력, 부모의 폭력 허용도, 양육태도,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1) 서울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2) 교신저자 :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건강복지학부 전임강사 (E-mail : yskim98@knsu.ac.kr)

I. 서론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왕따 등의 이름으로 또래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래괴롭힘이란 힘의 불균형을 바탕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또래에 의해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 물건파손, 협박이나 위협, 고의적인 따돌림 등 신체적 물리적 심리적 공격행동이 모두 포함된다(Olweus, 1991; Mishna, Pelter & Wiener, 2006). 이러한 또래괴롭힘을 경험할 경우, 우울감 및 불안의 증가, 자아존중감 저하와 외로움, 통제감 상실, 자신에 대한 취약감과 불안, 억제행동, 학교에 대한 거부감과 등교거부 등 다양한 적응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Egan & Perry, 1998; Olweus, 1994),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단순히 괴롭힘을 당하는 그 시기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우울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lweus, 1994). 또래괴롭힘의 심각성이 인식되면서, 최근에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괴롭힘 현상은 근절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양적 질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또래괴롭힘 현상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괴롭힘의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들과 아울러 주로 개인적 특성에서 괴롭힘의 원인을 찾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이희영, 1997; Rigby & Slee, 1993), 점차 개인이 속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또래괴롭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사후 대책보다 잠재적 가해 피해 학생들을 포함하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문제의 기원적 요인을 지닌 가정환경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는 환경으로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습득하는 공간이며, 또래괴롭힘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거나 변화나 예방의 통로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태도는 자녀의 발달에 있어 가장 지속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된다(한세리, 2007). 부모는 아동이 세상에 나와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되고, 이는 또래관계를 비롯한 여타 사회적 관계를 익히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Smith & Myron-Wilson, 1998).

김준호(1992)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은 전반적으로 폭력의 사용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훈육적인 폭력에 대하여 수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필요에 따라서는 폭력의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일을 더 쉽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가 폭력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지니는 것은 자녀의 폭력에 대한 태도 및 나아가 실제 또래괴롭힘 경험 정도에도 영

향을 미칠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들은 직접적이기 보다는 대개 인지적 매개과정을 거쳐 행동으로 표출되게 된다. 즉 폭력에 대한 긍정적 가치 및 태도의 형성이 폭력행위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김준호, 1998), 여기에 부모가 지니고 있는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의 여부는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 아동이 지닌 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폭력행동 경험정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됨을 볼 수 있다(Heather & Vangie, 1997; O'Keefe, 1997).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지닌 폭력에 대한 허용정도에 초점을 두어 그것이 실제 자녀의 또래괴롭힘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자녀의 또래괴롭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무엇보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훈육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체벌과 같은 폭력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할 경우 이를 경험한 아동은 학교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벌을 경험한 아동들은 더욱 거칠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약한 사람에게는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반면 강한 사람에게는 복종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도현심, 김선미, 2006; Patterson, 1982).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거부나 제재를 받는 아동들은 감정이입 능력, 친사회적 행동, 친밀한 의사소통, 정서조절 능력 등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밀접하고 효율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공격적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다른 아동에게 시비를 걸거나 비효과적인 공격을 가하여 상대를 화나게 함으로써 공격을 받기 쉽고, 또래들이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Perry, Perry & Kennedy, 1992). 또한 지나치게 자기비판적이고 의기소침해지며, 우울감, 불안감 속에 타인에 대한 비우호적인 공격성을 발달시키게 되며,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노경선, 심희옥, 2004).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부모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은 사회적 기준을 내재화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결여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불안과 위축을 나타내게 되며, 이는 나약함으로 인식되어 공격자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Ladd & Ladd, 1998). 부모가 강압적인 양육행동이나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자녀는 불안하고 자기주장을 못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거나 폭발적인 감정표현으로 인해 각종 유형의 청소년 비행을 저지르게 되며, 동시에 동료집단으로부터 따돌림, 폭행과 같은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한세리, 2007). 냉정하고 거부적인 양육특성, 신체적 처벌 등과 같은 권위주의적 훈육방법을 사용하는 양육행동은 부모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자녀의 욕구를 좌절시켜 분노를 유발하게 되고, 자녀의 공격성 형

성에 있어 모델로 작용하게 되며 자녀의 자아 가치감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자녀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 (Carson & Parke, 1996).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의 권위주의적 성향은 청소년기 힘(power)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합쳐져 폭력 가해 성향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Knafo, 2003). 김준호(1992)는 처벌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폭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책임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나아가 단지 외적 처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문제행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한편 또래괴롭힘 경험은 부모자녀간 애착관계와도 관련성을 지닌다. 또래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은 부모와의 애착관계 유형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Finnegan 등(1996)의 연구에 의하면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은 양육자와 불안정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불안정-회피 애착은 공격성과, 불안정-저항 애착은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기회가 부족하며 신뢰감이 적고 소원한 관계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스스로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발달적 과업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적절한 사회기술을 발달시키지 못함으로써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Finnegan et al., 1998; Elicker, Englund & Sroufe, 1992).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아동의 경우 또래 안에서의 지위

가 높거나 지지적인 친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또래괴롭힘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비밀관적이고 민감성이 떨어지며 거부적 특성을 지닌 양육자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될 경우, 아동은 대인관계에서 불안정한 취약성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특성은 또래괴롭힘 경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Troy & Sroufe, 1987).

이와 아울러,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부모의 특성은 가정내에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됨으로써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아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폭력적 훈육을 행사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아동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높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부부간 폭력 등 폭력을 관찰하는 경험이 아동의 또래 괴롭힘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관련시켜 고찰할 수 있다. 공격적인 역할모델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들은 관찰을 통해 공격적 행동을 학습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활용하게 되며, 강화에 의해 만성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황은영, 도현심, 신정희, 2008; Schwartz, Dodge, Pettit & Bates, 1997). 가족원과 갈등적 관계를 많이 경험한 아동은 가족성원들로부터 공격적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 이것이 학교상황으로 전이되어 또래친구와 교사에 대한 대응행동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들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공격적인 갈등상황 속에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습득하

지 못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기술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Frazer, 1996). Cummings (1998)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긴장상태가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공격적 성향을 지니게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 가정 내에서 갈등과 적대감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동은 디스트레스와 각성상태를 경험하게 되며 이것이 누적됨으로써 정서적으로 격앙되고 공격적 행동이 외현화된다. 갈등의 빈도가 높아질수록 아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공격적 행동을 일반화시키게 되며, 결국 보편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타인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이상균 재인용, 2005).

Gelles와 Straus(1979)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 처벌을 사용하거나 부부가 서로에게 폭력적 언행을 보일 경우, 이를 경험 혹은 목격하는 등 폭력의 사회화과정을 겪는 것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째, 사랑과 폭력을 연결시키게 됨으로써 자신이 좋아하거나 절친한 사람이 자신을 때리거나 때릴 권리가 있음을 배우게 된다. 둘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성격이나 세계관에 작용하게 되며,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정당화하게 되는 규범을 내재화하게 된다. 이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논리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처럼 부모가 지니고 있는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아동의 또래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러한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경로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태도나 애착유형이 또래괴롭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수행된 바 있으나, 부모가 지닌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중심으로 하여 경로를 파악하는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부모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은 이후 또래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있어 부모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개입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부모가 지닌 폭력에 대한 허용도와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이를 지닌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대해 아동이 느끼는 바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부모 스스로의 인식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개입의 근거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스스로 인식하는 폭력에 대한 허용도와 양육태도를 측정하고 이것이 아동의 또래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개입의 지점에 대한 확인을 시도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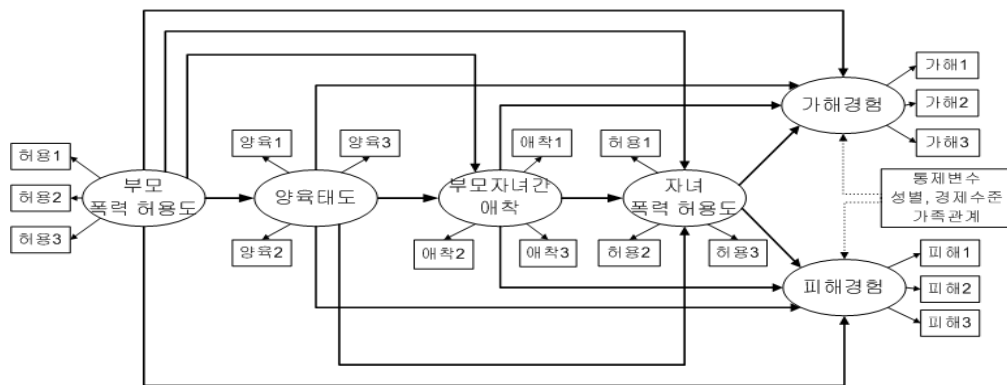


그림 1. 완전구조모형

형을 설정하였다. 부모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의 유대감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매개로 하여 또래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하고 검증한 후, 이론적 의미와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매개경로를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구조방정식 모델생성전략(model generating strategy) 과정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되 경험적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경로를 순차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간명하면서도 이론적 설명력을 고루 갖춘 최적의 모델을 찾자 하였다(배병렬, 2004).

2. 분석자료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서울시 2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중학교 시기는 발달단계에 있어 또래괴롭힘

현상이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경숙, 손희권, 1998). 2006년 6월 중 1주에 걸쳐 해당학교의 1, 2학년 5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학생의 경우 연구자가 각 학급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학부모에게는 학생을 통해 봉투에 담긴 설문지를 전달하고 설문지를 마친 뒤에는 밀봉하여 담임교사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학생의 경우 658개, 학부모는 611개였으며, 이 중 학생과 학부모가 매칭된 케이스인 597개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3. 주요변수

종속변수: 또래괴롭힘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

또래괴롭힘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노혜련, 김형태, 유서구(2006)가 개발한 학교폭력 가해경험 척도와 피해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해경험의 경우 지난 3개월 동안 신체적 언어적 폭력, 고의적인 따돌림,

협박이나 위협 등 총 10개 문항에 대한 가해 경험 정도를 ‘전혀 없음’(1점)에서 ‘자주 있음’(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피해경험에 대해서도 신체적 언어적 폭력, 고의적인 따돌림, 협박이나 위협 등 총 10개 문항에 대하여 지난 3개월 동안의 경험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의 경우 가해경험은 Cronbach α 값은 .796, 피해경험의 Cronbach α 값은 .871로 확인되었다.

예측변수

폭력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 부모가 폭력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인 태도를 지녔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노혜련 등(2006)이 학생용으로 개발한 측정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학생들 사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허용 인식, 교사의 폭력에 대한 허용인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척도의 총점은 15점에서 60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743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관여, 지도감독, 양육방식에 대한 문항들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부모의 교육관여는 이세용 양현정(2003)의 부모의 교육참여 정도 척도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 부모-자녀간 물리적 접근성 등에 대한 4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지

도감독은 ‘자녀가 집에 없을 때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는지’, ‘어른 없이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하는지’ 등에 대해 4문항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양육방식은 가정 환경 속에 있는 아동에게 유용한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자극과 자원의 질과 양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Home 척도 중 일부로, ‘당신은 자녀와 얘기할 때 꾸지람 없이 대화하는 편입니까?’, ‘당신은 자녀에게 평소 따뜻한 감정을 보이는 편입니까?’ 등의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모두 14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751로 나타났다.

부모 자녀 간 유대감. 부모 자녀 간 유대감은 자녀가 평상시 부모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 아버지 각각에 대하여 ‘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감정과 생각을 함께 나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모두 6문항으로 6점에서 24점의 점수분포를 나타내며, 신뢰도는 .851로 나타났다.

학생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 학생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노혜련 등(2006)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또래의 폭력행동에 대한 허용정도, 피해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 13개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지녔음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 α 값은 .828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 성별, 가족구조, 경제적 수준

부모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아동의 또래 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는데 있어 또래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구학적 변수인 성별, 가족구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아동의 성별에 대해서는 여성의 경우 ‘1’, 남성의 경우 ‘0’의 값을 설정하였으며, 가족 구조에 있어서는 양친부모 모두 있는 경우 ‘1’, 편부모 가족 및 부모가 부재한 가족의 경우 ‘0’의 값을 주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편’에서 ‘매우 넉넉한 편’까지 아동의 주관적인 평가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통계를 통해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음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폭력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가 자녀의 또래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에 대해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변수의 측정오차를 고려하는 동시에 다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영향관계를 동시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가정된 모형의 적합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지닌다(배병렬, 2004). 이와 같은

연구 분석을 위해 SPSS 15.0과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절에서는 우선 기술통계를 통해 본 연구에서 참여한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기술한 뒤,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과정에서는 본격적인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의 타당도를 확인함으로써 모형 추정치의 엄밀성을 높였다. 구조모형 분석에 있어서는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한 모형 수정을 시도하고 최적의 모형으로 검증된 모형을 중심으로 효과분해를 제시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기본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312명(52.3%), 여학생이 285명(47.7%)으로 여학생의 수가 조금 더 많으며, 중학교 1학년이 321명(53.9%), 2학년이 276명(46.1%)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는 양친부모가 계신 경우가 494명(86.9%)으로 가장 많았으나, 계부 또는 계모 가정 18명(3.0%), 한 부모 가정 53명(9.1%), 두 분 다 안 계심 2명(4.1%)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대상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사람이 아버지인 경우 149명(22.2%), 어머니인 경우 448명(77.8%)으로 어머니가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부모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41.8세, 학력은 고졸이상이 89.9%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소득은 약

표 1. 주요변수의 기술 통계치 및 왜도, 첨도

변수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표준편차)	첨도(표준편차)
부모 폭력허용도	516	24.725	5.177	.186(.108)	-.552(.215)
양육태도	498	39.831	5.857	.564(.109)	2.720(.218)
부모 자녀 간 유대감	552	17.322	4.412	.003(.104)	-.228(.208)
자녀 폭력허용도	547	25.614	6.360	.401(.104)	.475(.209)
가해 경험	560	16.704	4.231	1.122(.103)	1.986(.206)
피해 경험	556	14.389	4.456	1.828(.104)	4.544(.207)

33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속변수인 또래괴롭힘 경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번 이상 또래괴롭힘 가해 경험이 있는 학생은 97.3%,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89.9%로 나타나 다수의 학생들이 또래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를 제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기술통계치 외에 왜도와 첨도를 통해 자료의 다변량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모두 각각 절대값 3미만, 10미만으로 정규성을 일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 부모의 폭력 허용도가 자녀의 또래괴롭힘 경험에 미치는 영향 검증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부모의 폭력 허용도, 양육태도, 부모 자녀 간 유대감, 자녀의 폭력허용도, 가해경험, 피해경험은 이론적 개념(잠재변수)으로 다중지표를 사용하여 구성되는데, 이렇게 설계된 측정모형이 과연 적합한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먼저 전반적인 적합도지수를 살펴보면 χ^2 값은 304.976이며, 자유도는 137, $p=.000$ 으로 모형이 자료에 합치한다는 영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으나 χ^2 값은 사례수의 영향에 민감한 적합도 지수이니만큼 다른 적합도지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CFI(Comparative Fit Index)= .945, TLI(Tucker-Lewis Index)= .924, RMSEA(Root Means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43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하는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반영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2)과 요인적재량을 고려하여 개념에 대한 설명력이 높고 요인적재량이 가장 높은 것을 준거지표로 삼았다. 측정모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이 유의수준 .000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 폭력허용도, 양육태도, 부모 자녀 간 유대감, 자녀 폭력허용도, 가해경험, 피해경험에 대한 측정변인들은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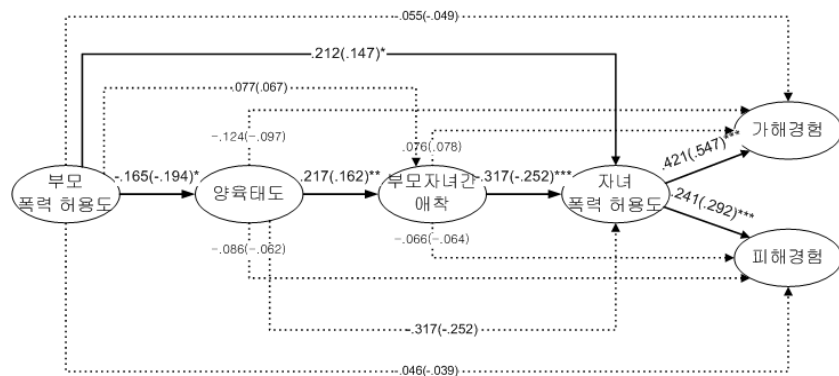
경로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오차	t값
허용1 ← 부모 폭력허용도	1.000	.493		
허용2 ← 부모 폭력허용도	.672	.653	.112	5.992***
허용3 ← 부모 폭력허용도	.473	.440	.080	5.913***
양육태도 ← 양육태도	1.000	.736		
학업관여 ← 양육태도	.434	.499	.063	6.843***
지도감독 ← 양육태도	.636	.572	.091	6.975***
유대감1 ← 부모자녀간 유대감	1.000	.861		
유대감2 ← 부모자녀간 유대감	.876	.810	.038	23.084***
유대감3 ← 부모자녀간 유대감	.942	.873	.038	24.693***
허용1 ← 자녀 폭력허용도	1.000	.604		
허용2 ← 자녀 폭력허용도	.212	.313	.033	6.350***
허용3 ← 자녀 폭력허용도	.700	.817	.078	9.026***
가해1 ← 가해경험	1.000	.682		
가해2 ← 가해경험	.985	.883	.062	15.926***
가해3 ← 가해경험	.882	.650	.063	14.055***
피해1 ← 피해경험	1.000	.878		
피해2 ← 피해경험	.999	.723	.061	16.489***
피해3 ← 피해경험	.832	.656	.055	15.249***

구조모형 분석

앞서 설정한 구조모형에 대하여 이 모형이 경험적 자료를 잘 반영하는지 알기 위해 구조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χ^2 값은 561.747, 자유도는 192, $p=.000$ 이며, CFI는 .909, TLI=.872, RMSEA=.058로 비교적 좋은 적합도를 보여 초기구조모형은 자료에 합치하는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완전 구조모형 분석결과 나타난 개별모수치와 경로를 검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 결과는 그림 2

및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폭력에 대해 허용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니게 되고(-.194), 자녀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 또한 높아지는(.147)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닐 경우 부모자녀간 유대감은 낮아지게 되며(.162), 부모자녀간 낮은 유대감은 자녀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높이게(-.252)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아가 자녀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을수록 실제 또래괴롭힘 가



$\chi^2 = 561.747$ (df=192, p=.000), CFI= .909, TLI= .872, RMSEA= .058

그림 2. 구조모형 검증결과

표 3. 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값
부모의 폭력허용도 → 양육태도	-.165	-.194	.068	-2.422*
부모의 폭력허용도 → 부모자녀간 유대감	.077	.067	.074	1.045
부모의 폭력허용도 → 자녀의 폭력허용도	.212	.147	.100	2.114*
부모의 폭력허용도 → 가해경험	-.055	-.049	.069	-.793
부모의 폭력허용도 → 피해경험	-.046	-.039	.076	-.709
양육태도 → 부모자녀간 유대감	.217	.162	.081	2.674**
양육태도 → 자녀의 폭력허용도	-.006	-.004	.119	-.052
양육태도 → 가해경험	-.124	-.097	.077	-1.619
양육태도 → 피해경험	-.086	-.062	.084	-1.016
부모자녀간 유대감 → 자녀 폭력허용도	-.317	-.252	.066	-4.824***
부모자녀간 유대감 → 가해경험	.076	.078	.047	1.624
부모자녀간 유대감 → 피해경험	-.066	-.064	.051	-1.299
자녀 폭력허용도 → 가해경험	.421	.547	.051	8.208***
자녀 폭력허용도 → 피해경험	.241	.292	.049	4.935***
성별 → 가해경험	-.493	-.194	.103	-4.810***
성별 → 피해경험	-.440	-.161	.116	-3.779***
경제수준 → 가해경험	.023	.013	.070	.323
경제수준 → 피해경험	-.234	-.124	.081	-2.884**
가족구조 → 가해경험	.133	.035	.152	.874
가족구조 → 피해경험	.073	.018	.173	.420

해경험(.571)과 피해경험(.292)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통제변수 중에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변수들이 나타났는데,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부모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간 유대감이라는 변인을 매개하여 자녀의 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자녀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녀가 또래괴롭힘 가해나 피해 경험 정도를 높리게 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부모자녀간 애착정도가 또래괴롭힘 경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이 자녀의 폭력허용도를 매개로 하여 또래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보다 간명하면서도 자료에 부합되는 최적의 모형을 찾고자 모형 다듬기를 실시하였다. 모형을 수정하는 전략은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유의미하지 않다고 제시된 경로들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각 경로를 제거한 경쟁모형을 원래 연구모형과 비교하여 모

형적합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퇴하지 않는지, 즉 불일치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지 카이제곱통계량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모형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가장 간명한 모형으로 얻어진 수정된 모형의 χ^2 값과 적합도 지수를 검토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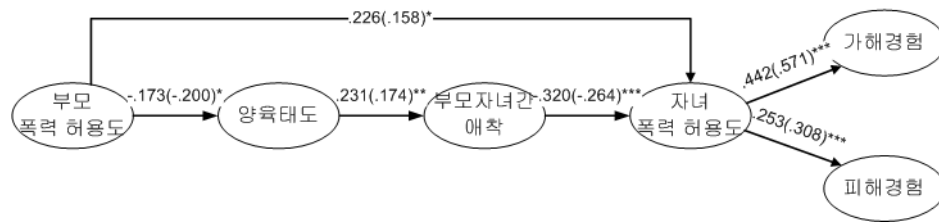
초기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비교해보면, 수정모형의 TLI와 RMSEA의 적합도가 조금씩 나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카이제곱통계량의 차이는 8.305(df=8)로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므로 초기연구모형의 부합도 증가는 간명성의 상실에 비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모형이 보다 간명하고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3 및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부모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자녀의 또래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정해볼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두 가지 경로로 요약된다.

첫째, 부모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그 자체로 자녀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것이 가해경험 및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폭력을 허용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경우, 그것은 암묵적으로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 또한 동일한 태도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표 4. 모형 비교

모형	χ^2	CFI	TLI	RMSEA
초기연구모형	561.747 (df=192, p=.000)	.909	.872	.058
수정모형	570.052 (df=200, p=.000)	.909	.880	.057



570.052 (df=200, p=.000), CFI = .909, TLI = .880, RMSEA = .057

그림 3. 수정모형

표 5.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값
부모의 폭력허용도 → 양육태도	-.173	-.200	.070	-2.474*
부모의 폭력허용도 → 자녀의 폭력허용도	.226	.158	.108	2.080*
양육태도 → 부모자녀간 유대감	.231	.174	.084	2.736**
부모자녀간 유대감 → 자녀 폭력허용도	-.320	-.264	.070	-4.727***
자녀 폭력허용도 → 가해경험	.442	.571	.056	7.826***
자녀 폭력허용도 → 피해경험	.253	.308	.046	5.540***
성별 → 가해경험	-.499	-.194	.104	-4.802***
성별 → 피해경험	-.437	-.159	.117	-3.740***
경제수준 → 가해경험	.015	.008	.070	.213
경제수준 → 피해경험	-.250	-.133	.081	-3.078**
가족구조 → 가해경험	.085	.022	.152	.559
가족구조 → 피해경험	.063	.015	.174	.362

볼 수 있다. 이는 부모가 특별히 자녀에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인 양육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의 일상적인 태도는 자녀에게 역할모델로 작용하게 되며 폭력이라는 기제를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됨을 보여준다.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가해경험의 경우 .090(.158×.571), 피해경험의 경우는 .049(.158×.308)이다.

두 번째 경로는 부모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양육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200), 이것이 부모자녀간 애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174), 나아가 자녀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264) 이것이 자녀의 가해경험(.571)과 피해경험(.308)을 높이게 경로로 설명된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가해경험의 경우 .053(-.200×.174×.571)이며, 피해경험의 경우 .028(-.200×.174×.308)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태도가 자녀의 또래괴롭힘 경험에 대해 지니는 총효과는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의 경우 .143 (.090+ .053), 또래괴롭힘 가해경험의 경우에는 .077(.049+ .028)로 가해경험에 미치는 효과가 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자녀의 또래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한 경로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중학생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매칭된 597사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에 기반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그 자체로 자녀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니게 되며, 이는 부모자녀간 유대감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를 통해 자녀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높아지게 되어, 궁극적으로 또래괴롭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최종모형 변수의 효과분해: 표준화계수

	인과효과	부모의 폭력허용도	양육태도	부모자녀간 유대감	자녀의 폭력허용도
양육태도	직접효과	-.200			
	간접효과	-			
	총효과	-.200			
부모자녀간 유대감	직접효과	-	.174		
	간접효과	-	-		
	총효과	-	.174		
자녀의 폭력허용도	직접효과	.158	-	-.264	
	간접효과	.092	-	-	
	총효과	.250	-	-.264	
가해경험	직접효과	-	-	-	.571
	간접효과	.143	-	-	-
	총효과	.143	-	-	.571
피해경험	직접효과	-	-	-	.308
	간접효과	.077	-	-	-
	총효과	.077	-	-	.308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폭력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는 자녀의 또래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또래괴롭힘과 관련하여 가정환경의 중요성이 지적되어 왔지만,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이나 부모 자녀 간 애착과 관련하여 자녀의 폭력경험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온 경향이 있다(도현심, 김선미, 2006; Ladd & Ladd, 1998).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간 유대감이라는 변수들을 매개로 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자녀의 폭력허용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궁극적으로 자녀의 또래괴롭힘 경험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부모의 폭력 허용도는 자녀의 폭력 허용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양육을 통하지 않고서도 폭력에 대한 태도가 학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의 폭력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입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 자녀 간 유대감은 또래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매개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양육태도와 부모 자녀 간 애착은 자녀의 또래괴롭힘과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으며, 본 연구도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로부터 거부 제재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동은 또래집단 속에서 부적절하고 부정적, 적대적

인 상호작용을 보이게 되며, 이것은 실제 또래괴롭힘 가해와 피해경험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Einsensbaun, 2007; Schwartz et al., 1997). 부모와 낮은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양육자와의 불안정한 관계 속에 원만한 상호작용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또래와의 관계형성이 서툴고 결과적으로 또래괴롭힘의 경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도현심, 2000; Finnegan et al., 1996).

셋째, 아동이 지닌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또래괴롭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직접적 매개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폭력허용도,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간 유대감은 모두 자녀의 폭력허용도 변인을 매개로 하여 또래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교사로부터 폭력적 훈육을 경험한 학생들은 폭력에 대해 우호적인 정의를 발전시키게 되며, 보다 쉽게 폭력문화를 학습하게 된다. 그 결과 폭력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하게 되며, 친밀한 관계에서도 폭력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Marcus, Lindahl & Malik, 2001). 폭력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폭력의 피해가능성과 가해가능성을 모두 높여주며, 이러한 경험은 다시 폭력에 대한 태도를 허용적으로 만드는 악순환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상균, 1999).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 있어 주요한 개입지점을 제시해 준다. 무엇보다 또래괴

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환경 측면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근래의 연구들은 학교폭력을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인지하고 폭력경험 학생의 개인차원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이 연계되어 함께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논의가 모아지고 있으나(이상균, 2005; Whitted & Dupper, 2005), 그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가정에 대한 개입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양육태도나 유대감을 단시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반해, 폭력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비교적 단시간의 교육을 통해 변화가 가능한 부분으로 자녀의 또래괴롭힘 경험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의 연계를 통해 또래괴롭힘 문제를 다루고 부모 나이가 가족 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가족관계의 의사소통 유형과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또래괴롭힘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가족갈등의 문제를 학교체계가 개입하여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가족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실시하거나 지역사회 내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또래괴롭힘의 경험 가능성이 높은 학생의 가족문제에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는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의 활성화 필요성이 높은 시점이다.

나아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의 또래괴롭힘은 학생들 간의 역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집단 구성원들이 또래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또래괴롭힘 현상을 발생 유지시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다. 폭력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채 집단의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별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방관자와 동조자들의 존재는 또래괴롭힘 현상을 종식시키지 못하게 막는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은 또래괴롭힘 경험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프로그램의 참여가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책임·죄책감의 변화를 매개로 하여 학교폭력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봉주, 김예성, 임정임, 2009). 향후 개발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 같은 유의미한 변인들을 확인하여 집중적인 개입지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폭력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학교폭력은 근절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김준호, 1992), 이 같은 기성세대의 문화가 청소년들에게 전수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학교에서의 폭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더불어 전사회 구성원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전 사회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폭력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가 자녀의 또래괴롭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이론적으로 검증하였다. 여기에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 자녀 간 유대감, 자녀의 폭력 허용도가 주요한 매개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부모의 폭력허용도 감소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고안하는 데에 있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우선 연구대상이 서울 지역의 2개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로 제한되어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 한계를 지닌다. 보다 넓은 지역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또래괴롭힘 경험 정도에 대한 측정은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자기보고 또는 타인보고 응답 방식에 의해 경험을 결과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자기설문, 타인의 응답, 제3자의 관찰과 같은 다양한 방식에 의해 또래괴롭힘 경험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 검증 시 통제변수로 투입된 성별과 가정의 경제적 요인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는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감안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준호 (1992).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1998). 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 제1집, 109-131.
- 노경선, 심희옥 (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괴롭힘 경험. 아동학회지, 25(6), 241-257.
- 노혜련, 김형태, 유서구 (2006).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 도현심 (2000). 초기 청소년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 부모에 대한 애착, 또래거부 및 우정관계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1(1), 307-322.
- 도현심, 김선미 (2006). 남녀 아동의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변인들 -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117-126.
- 박경숙, 손희권 (1998).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배병렬 (2004).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해와 활용. 대전 : 대경.
- 이봉주, 김예성, 임정임 (2009).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53호, 257-281.
-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균 (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19호, 141-169.

- 이세용, 양현정 (2003). 아버지의 교육 참여와 청소년발달.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정신 건강연구소.
- 이희영 (1997).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회심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영애, 이영자 (2007).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149-166.
- 한세리 (2007). 남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학생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 경험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은영, 도현심, 신정희 (2008). 또래괴롭힘 집단의 유형에 따른 부부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419-432.
- Carson, L., & Parket, R. (1996). Reciprocal negative affect in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peer competency. *Child Development*, 67, 2217-2226.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 299-309.
- Einsenbaun, K. D. (2007). Violence in schools: prevalence, prediction, and prevention. *Aggression and Violence Behavior*, 12, 430-469.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D. Parke & G. W.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s of Linkage*. (pp.77-10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 (1996). Preoccupied and avoidant coping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7, 1318-1328.
- Finnegan, R. A., Hodges, E. V. E., & Perry, D. G. (1998). Victimization by peers : Associations with children's reports of mother-child int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076-1086.
- Frazer, M. (1996). Aggressive behavior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an ecological-developmental perspective on youth violence. *Social Work*, 41(4), 347-361.
- Gelles, R. J., & Straus, M. A. (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 Y.: Free Press.
- Heather, M. G., & Vangie, F. (1997). Adolescents dating violence: differences between one-sided and mutually violent profi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1), 126-141.
- Knafo, A. (2003). Authoritarians the next generation: values and bullying among adolescent children of authoritarian fathers. *Analyses of Social Issues and Public Policy*, 3(1), 199-204.
- Ladd, G. W., & Ladd, B. K. (1998). Parenting behavior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correlates of peer victimization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50-1458.

- Marcus, N. E., Lindahl, K. M., & Malik, N. M. (2001). Interpersonal conflict, children's social cognitions, and child aggression: A test of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2), 315-333.
- Mishna, F., Pelter, D., & Wiener, J. (2006). Factors associated with perceptions and responses to bullying situations by children, parents, teachers, and principals. *Victims and Offenders, 1*, 255-288.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195-223.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lter and K. H.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411-447). Hillsdale, N. Y. Lawrence Erlbaum.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35*, 1171-1190.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a social learning approach. Eugene, OR: Castalia.
- Perry, D. G., Perry, L. C., & Kennedy, E. (1992).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lopment. In C. U. Schantz and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nd Adolesct*(pp.301-329).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gby, K., & Slee, P. T. (1993). Bullying among Australian school children: reported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victim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5), 615-627.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 665-675.
- Smith, P. K. & Myron-Wilson, R. (1998). Parenting and school bullying.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 405-417.
- Troy, M., & Sroufe, L. A. (1987). Victimization among preschoolers: Role of attachment relationship histor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 166-172.
- Whitted, K. S., & Dupper, D. R. (2005). Best practices for preventing or reducing bullying in schools, *Children & Schools, 27*(3), 167-174.

1 차원고접수 : 2010. 01. 09.
수정원고접수 : 2010. 02. 25.
최종게재결정 : 2010. 03. 05.

Levels of Acceptance of Violence by Parents and the Effects on their Children's Experiences of Bullying

Im, Jung-Im

Seoul Association of School Social Workers

Kim, Ye-Sung

School of Health & Life Science

Korean National Sport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aths of related variables that exert an influence upon the increase of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especially effects of levels of acceptance of violence of their parents. The data was taken from a survey which was conducted upon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in the Seoul area, and 597 matched cases were used for analysis. Based on preceding research exercise the research model was composed and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levels of acceptance of violence by parents directly influenced the level of accepting violence by their children and also did so indirectly through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child bonding. Moreover, the levels of acceptance of violence of children influenced their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From these results, va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focusing on improving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were discussed. In particular, programs aimed at decreasing the levels of acceptance of violence on the part of parents are most urgently needed.

Key words : school violence, level of accepting violence, bullying